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16일(목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4. 16.(목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홍주 과장(044-203-4360)	담 당 자	김수진 서기관(044-203-4365)

산업부장관, 코로나19 관련 중견업체 의견 청취

- 기보스틸 방문, 현장애로 및 위기극복 방안 논의 -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4.16일(목) 시화공단에 위치한 철강재 가공 중견기업인 **기보스틸(주)을 방문**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의 **애로를 청취하고 위기극복 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○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**비상경제회의**를 통해 발표된 그간의 **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**되고 있는지를 **점검**하는 한편,

○ 국내 **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**와 **중견기업의 지속성장**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【 현장방문 개요 】

◇ 일시·장소 : '20.4.16(목), 14:00, 기보스틸㈜(경기도 시흥시)

◇ 참석자 : (정 부) 성윤모 장관, 중견기업정책관 등
(기 업) 기보스틸(주) 회장 및 임직원

◇ 주요내용 :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애로 청취 및 위기극복 방안 논의

□ 기보스틸(주)은 '99년 설립되어 **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가공하는 기업**으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천억원 정도인 철강 중견기업이며

○ 최근 **클라우드·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생산시설의 스마트화**와 신규 사업을 위한 **공장 증설**(충남 당진)을 추진 중이다.

○ 한편,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·기계 등 전방산업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**판매 감소·재고비용 증가** 등 애로를 겪고 있고 **철강산업 내 가격경쟁 심화**로 **지속성장을 위한 방안**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옥 기보스틸 회장은 "매출 감소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**금융권의 만기 연장 적극 시행,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** 등을 요청"하였고

○ "철강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**품목 다각화, 신규 거래선 확보** 등을 노력 중에 있다"고 밝혔다.

□ 성 장관은 "그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**금융 등 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**과 **현장에서의 조기집행**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"고 하면서,

○ "특히 정책금융기관과 일부 시중 은행권이 중견기업 대상 **대출 만기 연장**을 시행 중인 바, 이러한 **모범사례가 민간 금융권 전반**에 **확산**되기를 기대하고

○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중견기업들이** 정책금융기관이 마련한 **P-CBO 등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**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* P-CBO(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) :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강하여 발행을 지원하는 보증제도

<중견기업 활용 가능 코로나19 금융지원 예시>

① **(신보) 주력산업 P-CBO 1.7조 + 코로나19 피해대응 P-CBO 1.68조원**

② **(산은)** 기존 대출한도 외 **특별한도(중견 최대 100억원), 특별운영자금대출 총 5조원**

③ **(수은) 수출입계약·실적 없거나 대출한도 소진 기업**,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 한도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총 2조원

○ 또한, "지속적으로 기업의 **금융 애로에 귀를 기울이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·협의**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견업계를 포함한 **산업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**을 기울이겠다"고 강조하였다.

□ 성 장관은 “철강업계가 당면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**선제적 사업재편**, **코로나19 이후의 수요 확대**에 대비한 **경쟁력 강화**를 적극 지원”하는 한편

○ “중견기업이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**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**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

* 지난 3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(1.22)에서 중견기업 A사를 발굴하여 R&D,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

○ 소재부품 강국인 독일내 연구소,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**‘한-독 소재·부품 기술협력센터’ 설립**, **중견기업 대상 산업R&D 제도개선** 등 지난 2월 수립·발표한 **「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」이 차질없이 이행**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하였다.

* 한-독 센터는 독일 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 본격 가동 예정

*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(최대50%→35%) 및 현금비중(최대50%→10%)을 금년 연말까지 완화하기로 발표

□ 한편, 성 장관은 “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**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야** 한다며, 중견기업인들이 **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”**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당일 현장방문 사진은 별도 배포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김수진 서기관(☎ 044-203-43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